

제1회 만해상 수상자 발표

- 평화상—조영식씨
- 실천상—가톨릭농민회
- 학술상—이기영박사
- 예술상—이반씨
- 포교상—송산스님



◇송산행원스님



◇이기영박사



◇조영식씨



◇이반씨

만해 한용운스님(1879-1944)의 나라사랑 겨레사랑 평화사랑의 높은 정신과 자유 평등 진보 통일사상을 기리고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해사상실천연합회(총재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가 제정된 제1회 만해상 수상자가 선정 발표됐다. 만해상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만해평화상 조영식씨(76, 일천만인산가족회추진위원장) △만해실천상 가톨릭농민회(회장 양민규) △만해학술상 이기영박사(74, 한국불교연구원장) △만해예술상 이반씨(56, 서양화가) △만해포교상 송산 행원스님(39, 화계사 조실) 등 5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7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되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 1천만원이 주어진다.

조영식씨는 유엔에서의 평화활동과 이산가족 고향방문 단교환사업 등을 실현시키는 등 이산가족 재회운동으로, 가톨릭농민회는 농민들의 권익실현 및 농촌민중화, 사회민주화에 앞장서고 우리말살리기운동, 농촌살리기운동, 대통령직선투쟁 등 한국민주화와 생명공동체운동에 크게 기여해 온 공로로, 이기영박사는 원효학을 집대성하는 등 새로운 학

“어머니·선생님도 함께 불러요”

찬불동요 한마당 불교음악연구회 16일 연강홀서

패기있는 20·30대의 젊은 불자 작곡가들이 누구나 부르기 쉽고 재미있는 동요형식으로 만든 새 찬불동요 30곡이 다양하게 소개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음악대학교수 및 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불자작곡가들의 모임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 중앙대 교수)는 오는 16일 저녁 7시 종로5가 연강홀에서 '96 찬불동요를 위한 사육제' 공연을 개최한다. 정부기 박사(중앙대 교수)를 비롯 민선희 이진구 최은숙 김수미 정연근 최현주 김명희 등 젊은 작곡가들이 작곡한 최근 찬불동요들이 선보이게 될 이번 행사는 더욱이 교계최초로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으로 이루어진 '가릉빈가 3중주단'의 창단을 기념하는 무대도 겸해 관심을 모은다.

첼로스님으로 잘 알려진 법현스님(대보사) 피아노에 이정은씨(삼보사합창단 반주자) 바이올린에 강현진씨 등 독실한 불심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릉빈가 3중주단은 창단과 더불어 불교음악을 서양현악기로 감상할 수 있는 범람의 기회를 자주 제공해 본격 음악포

시에 곡을 붙인 '모래부처님' '엄마바람 아가바람' '꿈' 등 3곡으로 막을 연다.

'연꽃 한송이' '생일축하의 노래' '혜당화' 등 5곡이 상악과 고소화 김희진씨의 중창으로 불려지며, '마음속의 부처님' '아름다운 마음' 등 독창, 우 현영가) 등을, 법안정사 통해사 삼보사 어머니합창단들이 '귀의' '혼자있을 때' '이밤을 어디서 쉬나' 등을 부른다. 특히 어머니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들이 서로 주고받듯 대화식으로 부르는 '화합의 노래'가 이날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독일 유학을 다녀온 타악기연주자 유재현씨가 10여개가 넘는 타악기를 동원해 찬불가를 타악기로 연주하는 이색연주도 눈길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교수는 "3중주단을 기반으로 불교음악연구회 구성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가을에는 불자음악가들을 대거 동참시켜 대규모 찬불가공연의 밤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이웃위한 음성공양 광주불교합창제 열려

17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전남 광주지역 5개 사찰 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성공양을 올린다.

광주불교사찰연합회(회장 영조)는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지사의 협찬으로 오는 17일 저녁 7시 광주시 남도

자은스님 민속춤 '사모곡' 발표

미국 하와이 불사 주지 자은스님은 지난 7일 하와이 마이하극장에서 개최된 한국 민속무용단 공연에서 민속춤 '사모곡' (사진)을 발표했다.

호노룰루 KBF-TV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공연에서 자은스님은 어머니를 잃어 비통에 빠진 아들이 관세음보살의 제도로 모



민속춤 '사모곡' 발표

'96 종교인미술전 불교작가 14명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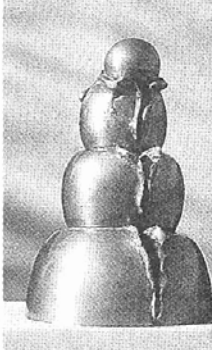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교 미술인들이 참여하는 '96 종교인미술전이 오는 1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미술전에는 오경환 이일중 전영화 송영방 손연철 김대열 류종민 조승환 등 불교계에서 14명의 작가를 포함 67명의 종교미술인들이 회화 조각 사진 등 부문에서 1백여점을 출품했다.

또한 월하 조계종 종정, 석주·법정스님, 환경직무사 등 종교계 지도자 13인의 작품 17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한편 미술전 개막식이 열린 지난 10일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는 '종교의례의 전환을 위한 모색'이란 주제의 종교문화 토론회의 장이 열렸다.

문화 소식



나상국씨 조각전 17일까지 갤러리 동주

이웃위한 음성공양 광주불교합창제 열려

17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전남 광주지역 5개 사찰 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성공양을 올린다.

광주불교사찰연합회(회장 영조)는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지사의 협찬으로 오는 17일 저녁 7시 광주시 남도

강행복씨 판화전 11-17일 단성갤러리

자연은 소재로 한 강행복씨의 목판화전이 11-17일 서울 단성갤러리(735-5588)와 천안 이채관화(0417-61-3269)에서 동시에 열린다.

나루 꽃 새 산 등 자연의 여러 모습을 통해 선적 경지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강씨의 '붉은해' '나루와 새' '날마다 좋은날' 등 50여 작품이 선보인다.

불자시인 김학인·이채란·안덕상씨 자연주제 시집 동시 출간

세 불자시인이 자연을 소재로 해 깊은 불심을 표출한 시집을 거의 동시에 펴내 화제다. 김학인씨가 <아름다! 달 그늘졌다 외동개라!>(불일출판사), 시조시인 이채란씨가 시조집 <강촌일기>, KBS 라디오기술국에 근무하는 안덕상씨의 첫 시집<나는 너의 그림자조차 그림다!>(아세미디어)가 그것.

김학인씨의 시는 어떤 가식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담히 표현하면서 출렁이는 생명력과 경이로움의 외세김질을 시도하고 있다. 처처에서 불성(佛性)을 발견하는 그의 시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정화하는 향기로운 선향까지 느낄 수 있다.

이채란시인의 <강촌일기>는 전체가 5부로 되어있다. 자연이나 삶의 세사에서 느낌을 따르면서 내적으로 영근 치열한 자기성찰이 돋보인다.

'동쪽으로 길을 열며/부처님을 따르니/반야경 의논만큼/은혜를 입고보며/오늘은 청정을 다져/취우침이 많습니다 <사월초파일>' 일상화된 신앙생활의 깊은 사유에서 울려 퍼진 이같은 발성이 삶의 미학과 어우러져 자연스런 화음이 되어 준다.

안덕상씨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집요할 만큼 정직하다. 무엇보다 역사속에서 가혹하게 짓밟히고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신으로 충만하다. 특히 '도피안사' 시리즈는 철불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에 대한 따스한 자비정신을 구현해내고 있다.



◇김학인씨 ◇이채란씨 ◇안덕상씨

불심시집 <71>

무릎 꿇은 적 없다

涉獵詩家已十年 시인들과 오가기 이미 십년 (섭렵시가이십년)

不會效蹠屣人前 남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소만 (부중자슬굽이전)

月下推歌方法字 달 앞에 문 두드리는 한지의 결정에는 (월하추고방법자)

驛境果見尹生員 문단에서 과연 윤생원 만났구료 (소단과견윤생원)

위 시는 무경(無竟)대사(1664~1737)의 시이다. 대사의 휘는 자수(子秀)이다. 대사는 당시의 시대흐름에 잘 적응하여 유·불·선 삼교를 잘 조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사의 삼교설(三敎說)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가르침은 세 갈래이나 이치는 하나이니 삼교가 세상을 착하게 하고 세속을 교정하는 것은 숲의 발 세계에서 하나도 없을 수 없는 것과 같다(敎雖三理則一也 三敎之善世 勸俗 猶鼎足之不可缺一)"이라 하였으니 세상의 교정을 위하여는 유 불 선의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함이다.

이러한 대사의 신념이기에 대사는 승속간에 자연인으로 서의 정이 남달리 도드라졌다. 제자 공화를 화강하며 쓴 제문은 남다른 감회에 젖게 한다.

"오! 공화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사람살이에 죽음이 있는 것은 밤과 낮 같은 필연으로 굳어 있어야 할 것이니,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없겠느냐마는 너에게는 온갖 슬픔은 끝내 드문 일이다. 오! 네 나이 2·8에 처음 나에게 왔고 내 나이 6·7에 또 너를 만나, 너와 내가 함께 살아온 지 지금 10에 또 네해가 되었으니 네 나이 이제 겨우 스물 여덟이

요, 내 내이 벌써 unda섯이구나. 내 하루 아침에 이슬이 되어 너의 소망을 외로이 버릴까 열려하였지, 네가 나를 버리고 먼저 갈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젊은 제자의 죽음을 이렇듯 슬퍼하고 있음도 대사의 인간적 한 단면이다. 문집에 그에 대한 애도시 한 수가 남아 있다.

"네 살고 내 죽었다면 죽음을 무엇 슬퍼하랴, 네 죽고 내 살아 삼 또한 슬프다. 서풍에 부리는 눈물 원망만 이득하여, 봄오막 지는 해에 끝없는 슬픔."

이렇듯 다정다감한 스님이었기에 승속간에 주고 받은 시에는 인간적 교감이 넘쳐 흐르고 있으면서도 스님으로서의 깨끗한 자제가 결코 속인에게 굴하지 아니하는 신념이었던 것이다. 위의 시는 그러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시인들과 사귀기 십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의 자작에 있어서 신중히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한 자라도 절정한다는 추고의 정신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한 내가 오늘날은 윤생원을 만났다 하니, 윤생원은 무릎을 맞힐 상대였던 듯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2백여명 렌즈에 비친 경주"

사진집 '경주에...' 훼손현장 고발등 다채

2백여명의 사진가들이 어느 하루 날을 잡아 경주를 렌즈에 담았다. 석굴암 불국사 황룡사터 등 문화재뿐 아니라 서라벌 축제, 관광객들, 분황사암 석주(石獸)등 큰 문화재(경주)가 거러 놓이기 쉬운 작은 볼 것들, 한가한 모습의 경주시민들에 이르러까지 살아있는 경주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집 <경주>에 가보았어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눈빛> 刊)

지난 5월 18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모인 사진학과 교수, 전문사진가, 사진학과 학생 등 2백여명의 작품이 담긴 이 사진집은 관광도시로의 개발과 역사도시로서의 경주가 훼손돼 가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고 갖가지 모습의 남산석불들과 천천한 웃음을 웃고있는 강승, 뿌리만 남기고 송두리채 베어져버린 숲술너머로 보이는 아파트숲, 화재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김유신장군묘 등, 개개인이 다양한 시각에서 들여다본 고도 경주의 다채한 리이다.

한국다큐멘터리사진학회 역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김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8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祈 禱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일타르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의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일평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타르스님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의 특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오히려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동선호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